

전진(하지 못)했던 페미니즘*

— 2000년대 문학 담론과 ‘젠더 패러독스’의 패러독스

백지은**

1. 머리말: 페미니즘 문학/담론의 (재)구성과 그 맥락을 위하여
2. ‘여성 문학을 넘어서’
 - 2-1. ‘여성 대 남성’의 이분법을 넘어
 - 2-2. ‘남성(성)’을 지나 ‘소수자’를 아우르는
3. ‘타자’라는 올인원(all-in-one)
 - 3-1. 여성은 타자다
 - 3-2. 타자적인 것이 여성적인 것
4. ‘탈·’과 ‘너머’의 요청으로
 - 4-1. ‘탈·’의 상상력/담론과 함께
 - 4-2. ‘(여성)(재현) 불가능’의 역설
5. 맺음말: ‘젠더 패러독스’를 넘어

국문요약

최근의 활발한 여성 담론의 전사로서 2000년대 문학/담론에서의 ‘페미니즘’의 입장이나 위상을 살펴볼 필요성이 긴급해졌다. 지난 시절의 문학장에서 ‘페미니즘’은 어떤 위상이었는가? 19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며 질적으로 양적으로 급속 팽창/성장했던 여성 작가들, 비평가들의 행보는 최근의 페미니즘 논의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에서는 2000년대의 문학담론/비평에

* 이 제목은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의 저서 『전진하는 페미니즘』(임옥희 역, 원제: *Fortunes of Feminism*)의 제목을 변형한 것이다.

** 고려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서 ‘여성성’ 혹은 ‘여성문학’을 규정하(지 않으려)는 양상과 페미니즘 논의가 그 외의 — ‘타자’, ‘너머’, “재현불가능’ 등과 관련된 — 논의들과 겹치(거나 수렴되)는 양상을 규명하였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얻게 되었다. 첫째, 그것들은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각인 또는 환기하는 문학적 실천들이 다양한 맥락에 걸쳐 있는 사회적 실천의 수행과 겹쳐진 구성이라는 사실을 숙고하였다. 둘째, 뚜렷한 경계로 획정할수록 어긋나거나 왜소해질지 모를 ‘여성’이라는 젠더를 고착적인 이분법 같은 무딘 압력으로 억누르지 않기 위해, ‘여성’의 가시적인 처지들을 비가시적인 가능성 속에 녹아들게 하려는 의도를 포함하였다.

결론적으로, 2000년대 문학/담론에서 ‘여성’을 사유하거나 논의할 때는, 그것이 이른바 ‘대문자 여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환원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강력했고, 따라서 ‘젠더를 없애기 위해 젠더를 말하기’라는 역설에 봉착했다고 생각된다. 현재 이미 시작된 새로운 페미니즘 실천/운동의 핵심적 의미와 파급력은 이 역설을 감당하며 뚫고 지나 온 시기의 문학/담론들과 연속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페미니즘, 포스트페미니즘, 젠더 패러독스, 2000년대 문학담론)

1. 머리말: 페미니즘 문학/담론의 (재)구성과 그 맥락을 위하여

2018년 3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압도적인 비난과 질타 혹은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이어지고 있는 이슈는 과거/현재의 성폭력 사건을 폭로하는 이른바 “미투(#MeToo)운동”이라 할 것이다. 지난 1월 말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jbc 뉴스룸 인터뷰 코너)을 통해 ‘김철 내 성폭력’ 사건이 폭로된 직후부터, 법조계, 정계, 학계, 예술계를 막론하고 “나도 그런 경

힘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영화계 인사 아무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와 반성의 목소리가 동시에 줄을 잇는 현장을 목도 중이다.¹⁾ 한 여성 검사(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지난 8년 간 자신을 괴롭혔던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고발하자, 이미 지난 1-2년 사이 한국 사회 전반의(혹은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과 조명을 받고 있는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 별로 관심을 표하지 않았던 남성 지식인들이 새삼 응원과 지지를 표명하고 나선 것도, 현재 진행 중인 “미투 운동”에 내재된 독특한 계기로 여겨질 수 있겠다.²⁾ 그런데, 이런 계기들로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잠복해있던 성차별적 위계의식과 그릇된 성문화를 가시화하고 근절할 수 있는 기회를 맞으리라는 기대감의 한편에는 어쩐지 그것이 뒤늦은 확산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은 듯하다. 지난 2016년 10월, 문학출판계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폭로로 영화계, 미술계 등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갔던 #○○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

-
- 1) ‘검찰 내 성폭력’ 폭로에 곧바로 이어진 것이 최영미 시인의 최근 시 〈괴물〉(『황해문화』, 2017년 겨울호 수록)을 놓고 오간 인터뷰에서 고발된 고은 시인의 성폭력이었다. 이미 ‘문단 내 성폭력’에 관한 말하기로부터 ‘문학’의 위상에 관한 내적, 외적 반성과 고찰이 이어져 왔고, ‘문학계의 담론이 우리 사회의 페미니즘 이슈와 연동되는 흐름을 보인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지난 두 정권을 지나며 국내의 정치사회적 사안마다 입장과 주장을 뚜렷하게 제시해 온 남성 지식인 중 두 사람의 사례를 들겠다. tbs라디오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는 서지현 검사가 “힘든 인터뷰로 인해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에게 위로와 격려, 용기를 줬다”면서 “미국의 하비 웨인스틴에게 당했던 배우 알리샤 밀라노의 폭로로 시작해 미투 해시태그가 전세계를 휩쓸었다. 우리나라는 조용했는데 공개했을 때 피해가 두려웠을 것이다. 서지현 검사를 응원한다”(김유민 기자, 『서울신문』, 2018.1.30)고 말했다고 한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30500010#csidx3e453e893b1ef86b8f968ada7ea901c> 역사학자 전우용은 “‘미투 운동’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확산되어야” 한다며 “장자연씨가 자기 목숨을 던지며 언론권력과 방송연예계 권력의 추악한 범죄행각을 폭로했을 때, ‘미투’라고 말한 사람이 한 둘만 있었어도 세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라고 본인의 트위터 계정(twitter@histopian, 2018.2.20. pm10:30)에 적었다.

시작된 지 1년이 훌쩍 넘도록, 전혀 그 사실을 몰랐다는 듯 이제야 관심, 동조, 지지를 표명하는 사회 각계의 반응들이 의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 조직이라는 권력의 중심부에서 벌어진 사건이 jtc라는 거대 언론을 통했다는 사실이 (재)발화점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으리라는 짐작은 물론 가능하지만, 그와 동시에, 오래전도 아닌 근래의 활발한 움직임이 유의미한 운동의 흐름으로 맥락화하는 데에 현재 국내의 지식장이 얼마나 무딘지 혹은 얼마나 편향적인지도 또한 충분히 짐작 가능해진다.

현재 거대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는 여성 운동의 흐름 한복판에서 여성 담론/문학의 개별적 특성이나 유기적 맥락을 진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 수 있으나, 바로 그 이유, 즉 현재 여성운동이 거대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는 그 이유에서라도 현재의 여성 담론/문학의 특성을 통시적으로 고찰할 것이 요청된다. 이를테면, 2016년 10월 출간된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한국소설로는 드물게 베스트셀러가 되어 인구에 회자되자 “왜 이제야 사람들/여성들이 이런 이야기에 이토록 열광하는가?”라고 의문을 표한 경우들에 대해, 어떤 대답이 가능할지도 생각해보아야만 할 것이다. 『82년생 김지영』의 붐에 대해 누군가는 이렇게 묻는다. 이전의 한국 소설은 한국 사회의 이런 여성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았던가? 현재 이슈화된 페미니즘 논의를 불러올 만한 지점이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가? 전 시대에 비해 사회 내 여성의 지위와 권리는 나아졌는데 하필 이 시대에 ‘여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논의들이 활발한 까닭은 무엇인가? “문단 내 성폭력” 폭로로 인해 불현듯 여성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인가? 혹은 재작년 “강남역 살인 사건”으로 촉발된 사회 전반의 이슈에 소설 독자들이 강력하게 휩쓸렸기 때문인가? 등등.

2010년대 후반 현재,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을 비롯한 최근의 여

성 소설들—강화길, 김혜진, 박민정, 정세랑, 최은영 등의 여성 작가들이 ‘여성의 삶’을 주체화하여 쓴 소설이나 한국의 남성적 문화에서 만연한 (성)폭력을 다룬 소설 등—이 ‘페미니즘 문학’으로 호명되고 이해되는 배경이나 이유가 문학 담론장의 흐름과 더불어 설명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문학장 안팎을 막론하고 활기차게 번져가는 이런 시도들과 분위기가 유례없이 나타난 일시적 사태도, 우연히 형성된 돌발적 현상도 아닌 만큼이나, ‘페미니즘 문학’의 흐름/진행/전진이 갑작스러운 열기인 것도, 오직 현재적 사건인 것도 아니다. 최소한 지난 일십 년간 한국 문학에서 ‘여성성’, ‘여성 문제’ 등을 키워드로 했던(혹은 하지 않았던) 논의들은 현재적 상황과 더불어 재고(再考)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 한국 문학은 내내 여성 문제에 무관심하다가 이런저런 사회적 맥락 속에서 부각된 페미니즘 이슈에 이제 막 부응하기 시작한 것인가? 19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며 질적으로 양적으로 급속 성장했던 여성 작가들, 비평가들의 행보는 최근의 페미니즘 논의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지난 시절의 문학장에서 ‘페미니즘’은 어떤 위상이었던가? 이미 시작된 실천/운동의 의미와 파급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저널리스트틱한 견해들을 전유하여 새로운 페미니즘 문학/담론의 기반으로 삼기보다는, 현재의 여성 담론의 전사(前史)로서 2000년대 문학/담론의 페미니즘적 입장이나 위상을 검토할 필요는 긴급하다.

2. '여성 문학을 넘어서'

2-1. '여성 대 남성'의 이분법을 넘어

2000년대 문학 담론들에 '여성성', '여성 문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키워드로 등장하는 경우는, 특히나 1990년대 문학 담론들에서의 그 정황과 비교한다면 현저하게 적어진 것이 눈에 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 현상/사실이 반드시 페미니즘 문학의 쇠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시각이 만연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진경은, 1990년대 문학을 논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테마가 '여성성'인데, "여성성이 함의하는 내용은 요약이나 정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 또한 여성 비하적인 것에서부터 여성 해방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논의들 속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여"3)졌음을 문제시하면서, "여성의 자질을 표출한다거나 여성이 처한 사회정치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작품에 담아내려는 노력이 여성성의 시학이 될 수는 없"음을 강변했다. 동시에 "페미니즘 미학을 일방적으로 실험적인 문학 형식과 연관시키려는 시도나 주변부적 형식을 여성적인 것과 동일시하려는 시도 또한 경계해야"4) 한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여성 작가들의 약진과 더불어 활기를 띠었던 '여성' 관련 논의들이 점점 유사한 경향으로 굳어져 상투화되었다는 판단, 그리하여 진보적 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의 목표)에 오히려 부합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다는 판단이 강경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물론 "페미니즘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페미니즘에 균열

3) 심진경, 『여성성 혹은 문학적 상상의 원천』, 『떠도는 목소리들』, 자음과모음, 2009, 133쪽.

4) 심진경, 『여성성 혹은 문학적 상상의 원천』, 『떠도는 목소리들』, 자음과모음, 2009, 147-148쪽.

과 변화가 생겼다는 의미에서 포스트페미니즘을 중점적으로 문제삼는”⁵⁾ 것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성’ 아니면 ‘남성’이라는 이분화된 단수적 젠더 한계를 타파하고 “복수적 젠더”들의 가능성을 타진”하여 “새로운 여성적 영역”⁶⁾을 발견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졌다.

문학에서 ‘여성’ 관련 논의들이 ‘여성’ 작가들의 작품과 ‘여성’ 재현에 국한되었다는 불만, 그리하여 “여성적 심리나 여성 육체 및 성을 강조하는” 데 머물고 말았다는 반성의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여성 대 남성’을 가르는 이분법을 공고히 한다는 데 있었다. ‘여성’은 생물학적, 존재론적 개념이 아니라는 데서 출발한 이러한 인식은 2000년대 문학담론의 공통된 전제와도 같았다. “여성의 생물학적인 특성이나 자연과의 친연성을 전경화한다고 해서 여성성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시도는 여성을 ‘뭉’으로 환원하고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여성/남성의 이원론적 구도를 고착화할 수 있다.”⁷⁾고 경계하는 단언이나, “여성성을 남성성과의 대립적 관계 속에서 규정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성 고유의 성적 정체성 혹은 본질로 환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여성과 남성은 서로 양립 불가능한 존재로 분리될 뿐만 아니라 변경 불가능한 이분법적 쌍을 형성하게 된다”⁸⁾는 데 대한 불편한 거부감은 당시 성차에 관한 일반적인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항 중 여성성을 우위에 놓든 그 반대에 놓든, 1990년대 문학에서 이 구조는 1980년대의 계급 이분법을 변형한 형태의 기계적이고 분리주의적인 도식이라는 비판으로까지 이어

5) 김미현, 『젠더 프리즘』, 민음사, 2008, 7쪽.

6) 심진경, 『떠도는 목소리들』, 자음과모음, 2009, 201쪽.

7) 허윤진, 『나의 분홍 종이 연인들, 언어로 가득 찬 자궁이 있는 남성들』, 『5시 57분』, 문학과학지성사, 2008, 212쪽.

8) 심진경, 『여성성 혹은 문학적 상상의 원천』, 『떠도는 목소리들』, 자음과모음, 2009, 141쪽.

지기도 했다.⁹⁾ 이런 인식은 나아가, 이 사회의 질서는 대개 남과 여로 분리되는 이분법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기에, 기존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식일수록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는 데까지 이어진다. “남자 아니면 여자(이 역시 남자일 텐데)의 자명한 성차 구분법은 제2, 제3, 아니 무수한 복수 젠더들을 용인하지 않”으므로 “남/여의 이분대당(二分對當)에 기반한 사회에 윤리를 요구해야 할 주체들이 여성들만은 아닐 것”¹⁰⁾이라는 문제제기는 ‘윤리’에 관한 문학적 태도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이처럼 성별에 관한 이원적 접근을 문제로 파악했던 까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말해볼 수 있겠다. 첫째, 성 차별주의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 또는 불평등한 사회적 현실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남성에게는 죄의식을 여성에게는 분노를 강요”하게 되면 “전투적이고 분리주의적인 페미니즘 문학이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¹¹⁾을 터인데, 그렇게 되면 교훈적이고 권위적인 페미니즘의 요구에 문학이 굴복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 문학을 ‘여성들만의 문학’으로 제한해버림으로써 끝내 문학의 변두리 하위 장르로 밀어내 고착시켜버리”기 때문이다. 셋째, 2000년대에 활발히 소설을 썼던 여성 작가들은 이전 세대의 여성들이 여성으로서 겪은 상처나 희생과는 다른 종류의, 가령 “긍정적인 여성성의 계발이나 공적인 자아의 실현에 더욱 중심을” 둔 경험 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여성적”인 주제를 ‘여성적’으로 쓰지 않고, ‘인간적’인 주제를 ‘인간적’으로 쓰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¹²⁾른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예컨대 “문단의 ‘여성 시대’가 오고 있다”는 류의 헤드라인이

9) 심진경, 『여성성 혹은 문학적 상상의 원천』, 『떠도는 목소리들』, 자음과모음, 2009, 142-143쪽.

10) 김형중, 『성(性)을 사유하는 윤리적 방식』, 『창작과비평』, 2006년 여름호, 254쪽.

11) 김미현, 『젠더프리즘』, 민음사, 2008, 15쪽.

12) 김미현, 『젠더프리즘』, 민음사, 2008, 19쪽.

라면 이는 “은연중 남성과 여성을 철저히 경쟁과 대립의 관계로 설정하고 여성이 남성의 지위를 넘보는 현상을 우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므로 “아직도 남성/여성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은밀한 성별적 무의식이 발견”¹³⁾되는 씁쓸한 현실이 된다. 이런 인식이 “여성”을 유표화하기보다는 여성 작가가 가진 이러한 복합성을 발견하는 일이 필요한 때”¹⁴⁾라는 주장을 가능케 한 배경이겠다. 여성 작가들의 의지가 “창조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나는 중성적인 글쓰기를 지향하는 것”(은희경), “여자의 냄새가 맡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냄새가 맡아지는 소설”을 통해 “새로운 여성이 아니라 편견에서 비껴선 여성”(천운영)을 그리는 것,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하고 싶지 않았고 남자도 여자도 아닌 일종의 중간자가 되고 싶었다”(강영숙)는 것 등의 고백으로 표출되었던 것을 상기해볼 수 있다. “어느 순간부터 여성 작가라는 것이 여성 문제만을 여성적 글쓰기라는 모호한 방법으로 문제 삼는 온전하지 못한 ‘절반의’ 문학으로 취급되면서 여성 작가들은 ‘여성(작가)의 불안’을 보이게”¹⁵⁾ 된 것이었겠다.

2-2. ‘남성(성)’을 지나 ‘소수자’를 아우르는

‘여성의’ 이야기와 ‘여성’에 관한 논의가 “절반의 문학”으로 폄하되기 쉬운 것이라면, 그러한 논의는 확대, 전환되어야만 했을 것이다. 크게

13) 심진경,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여성, 문학을 가로지르다』, 문학과지성사, 2005, 321쪽.

14) 심진경,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여성, 문학을 가로지르다』, 문학과지성사, 2005, 332쪽.

15) 김미현, 『젠더프리즘』, 민음사, 2008, 18쪽.

두 가지 방향의 질문이 선행되었다.

먼저, ‘여성(성)’을 대립항으로 하는 ‘남성(성)’에 대해, ‘여성(성)’만큼이나 심도 있게 물어져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했다. 일반적으로 여성성을 대상화하는 쪽은 남성적 주체인데, 그가 대상화를 통해 구사하는 문학적, 정치적 전략은 바로 ‘남성성’을 구성하는 전략과 뗄 수 없거나 심지어 거의 일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허윤진은 “여성 문학이 부각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남성성을 다소 부정적인 함의를 갖는 여성성의 대립항이자 주변적인 여성성을 억압하는 중심적인 기제로 상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연 ‘모든’ 남성 작가들의 문학이 그러한가? 우리는 “남성의 동일성이라는 신화”에 침윤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¹⁶⁾라고 물으며 “이전의 남성 작가들은 자신의 모순을 은폐하고 대상을 권력적인 시선으로 형상화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00년대의 작가들은 “이미 자신들이 무수한 타자들 속에서 구성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타자들—특히 어머니나 누이와 같은 여성들과 여성성—을 부인하거나 배제하려 해도 그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타자들에게 영향과 상처를 받는 ‘연약한’ 남성들”¹⁷⁾이라고 말한다. 허윤진의 또 다른 글, 『나의 분홍 종이 연인들, 언어로 가득 찬 자궁이 있는 남성들』에서는, 최하연과 황병승의 시에서 “이 ‘결핍된’ 남성들이 원하거나 이미 실현한 육체는 여성의 육체”인데 “타자인 여성의 타자적인 ‘육체’를 전유하는 것은 가부장제에 편입하지 않기 위해서 실행하는 일종의 대안”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들이 더 이상 남근을 원하지 않는 것은 질서와 법을 부여하는 상징적 존재를 거부하기 때문이다.”¹⁸⁾ 가령 황병

16) 허윤진, 『(깨진) 거울을 보는 남성들』, 『5시 57분』, 문학과지성사, 2008, 276쪽.

17) 허윤진, 『(깨진) 거울을 보는 남성들』, 『5시 57분』, 문학과지성사, 2008, 289-290쪽.

18) 허윤진, 『나의 분홍 종이 연인들, 언어로 가득 찬 자궁이 있는 남성들』, 『5시 57분』, 문학과지성사, 2008, 217-219쪽.

승의 시에서 “성장의 징후인 코밑의 수염을 밀어 자신의 남성성을 거부하고 누이의 젖은 치마를 훔쳐 입으며 여성성의 외피를 걸쳐보기도 하지만 소년도 소녀도 아닌 페르소나의 외로움은 증폭될 뿐”인데, 이 “제3의 여성성을 수행하는 경계적인 존재들이 겪는 이중의 소외는, 내 안의 타자성”으로 규정된다.¹⁹⁾ 심진경이 강영숙 소설에 대해 “기존의 ‘여성성’ 개념을 심문하고 남성적 여성성 혹은 여성적 남성성이라는 새로운 성적 정체성의 가능성을 타진”함으로써 “관습과 통념을 전도”시키고 “지배적인 젠더 체계에 기초한 가부장제적이고 이성애적인 문화와 감수성을 조금씩 균열시키고 바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한 비평도 참고된다.²⁰⁾ 이와 같은 논의에서는 ‘여성(성)’을 구성하게 하는 기존 질서의 전략들에서 남성성, 가부장제, 이성애적 문화, 관습, 통념 등에 동일화되지 않는 타자적 요소들을 ‘여성(성)’으로 연결짓는 경향이 보인다.

하나 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여자라는 젠더 하나가 아니라 인종, 계급, 민족, 지역, 종교, 나이, 교육, 언어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여성 주체’란 가변적인 환경과 상황에 따라 무수히 다양한 여성들을 하나로 정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여성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젠더들의 정치적 연대로써 구성되는 것이리라는 생각이었다. 자본, 상품, 노동, 문화 등의 이동으로 국가간 지역간 경계가 더욱 희미해진 21세기 이후, 페미니즘 이론이 주목하는 것도 일국의 차별적 제도가 아니라 ‘세계 체제’라는 보편 질서로 이동했다고 할 수 있

19) 허운진, 『나의 분홍 종이 연인들, 언어로 가득 찬 자궁이 있는 남성들』, 『5시 57분』, 문학과지성사, 2008, 234쪽. 황병승의 시에 관한 비평에서 “이분대당을 넘어선 성적 주체들”(김형중, 『성을 사유하는 윤리적 방식』, 『창작과 비평』, 2006년 여름호, 254쪽)에 주목한 경우는 그것에 주목하지 않은 경우보다 월등히 많은 듯하다.

20) 심진경, 『새로운 여성성의 미학을 찾아서』, 『떠도는 목소리들』, 자음과모음, 2009, 211쪽.

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여성’의 이야기와 ‘여성’에 관한 논의는, 소수자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확장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데로 이어졌고, 따라서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압받는 ‘약자’가 여성만은 아니라는 의견 들에도 응대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²¹⁾

예컨대, 이른바 ‘칙릿’ 소설을 “여성소설의 후예들”이라고 부른 소영현의 비평을 다소 넓은 맥락에서 그런 대항의 한 사례로 읽을 수 있다. 그는 칙릿 소설을 “여성의 사회화 과정을 보여주는 세속적 성장담”으로서 이해한다. 당시 ‘칙릿’ 소설로 불린 일련의 소설들에 대해 “지역과 계급, 나이와 성적 취향에서 무한히 세분되는 현대 여성 가운데, 소비문화와 이성애적 로맨스에 집착하는 극히 일부를 대변”한 것일 뿐이라 말해질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재현된 여성들이 현대의 “페미니즘의 유산을 충분히 상속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속물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야 하는 여성의 현실”과, 여성으로서 “드러낸 욕망이 만나야 할 사회의 시선, 그 타협과 조절 혹은 실패의 과정을 리얼하게 담고 있

21)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영화배우 엠마 왓슨의 유엔 연설에 대해 고종석이 다음과 같이 발언한 사례를 덧붙여 보겠다. “(…) HeForShe라는 구호에는 인류가 성적으로만 구분된다는 함의가 실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페미니즘이 모든 여성과 모든 남성을 동질적으로 여기는 거친 페미니즘은 아닐 것입니다. HeForShe의 He에는 모든 범주의 강자나 가해자가 포함되어야 하고, She에는 모든 범주의 약자나 피해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당신도 동의할 것입니다. (…) 그러나 말랄라의 페미니즘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온 경험의 소산입니다. 당신이 연설에서 술회한, 당신 성장기의 ‘여성스럽지 않음’에 사람들이 별난 눈길을 보낸 것과는 그 경험의 질이 다릅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당신과 말랄라를 비교해 말랄라의 페미니즘이 더 온전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말랄라 역시 최연소 노벨평화상을 탄 국제적 명사입니다. 당신이든 말랄라든, 이미 국제적 명사가 돼버린 여성에게는 사실 페미니즘의 필요성이 그리 절실하지 않습니다. (……) 페미니즘의 주체는 여성만이 아니라, 여성을 비롯한 모든 인류입니다. 남성과 LGBT를 포함한 모든 인류입니다. 인종과 계급과 장애 여부를 가로지르는 모든 인류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202123075#csidx54827b55e1c16b49807e9be1e16b32e)

다”²²⁾는 점에 주목한 해석이었다. 여성 서사를 오직 ‘여성’만의 이야기로 볼 수 없게 하는 지역, 계급, 나이, 취향 등의 세분화된 배경들을 배제해선 안 된다 해도, 서로 다른 배경에서 구성된 그 삶들이 사회와 만나는 지점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양상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의식이다.

이런 의식과 관련하여, 예컨대 2000년대 대표 작가라 할 만한 윤성희, 천운영, 편혜영, 김애란 등의 여성 작가들이 여성 인물로 여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들이 다른 여성의 삶과 여성의 문제가 ‘여성’이라는 키워드로 충분히 부각되었던가 하는 의구심도 덧붙여볼 수 있다. 당시의 담론적 분위기 또는 문학 공동체의 일반적 경향은, 여성의 삶으로 ‘치환되지 않는’, 여성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혹은 여성이라는 조건 ‘이상’의 무엇을 환기하는 데 더 열렬했고, 그러느라 정작 여성적인 것의 현재적 위상은 실제보다 과대평가된 채로 눈앞에서 밀려나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여성 주체’의 구성을 약자, 소수자의 지위에 밀착한 정치적 작업으로 환치하는 경향에 대해 김미현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함께 참고되어야 한다. “여성‘만’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억압받는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 여성은 여성 자체가 아니라 소외인이나 소수자의 대변인이라는 논리를 강요”하는 것은 “페미니즘 문학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여성 작가의 특성을 약화시키는 경향”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여성성’이란 개념이 변화할 수는 있지만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라면 “페미니즘이 휴머니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논의”²³⁾가 여성을 여성으로 드러내는 데 제약으로 작동할지도 모른다는,

22) 소영현, 『포스트모던 소비사회와 여성소설의 후예들』, 『분열하는 감각들』, 문학과 지성사, 2010, 174-175쪽.

23) 김미현, 『젠더프리즘』, 민음사, 2008, 18쪽.

혹은 분명하게 드러난 ‘여성성’을 ‘소수성’으로 손쉽게 대치함으로써 페미니즘적으로 바라봐야 할 억압의 구도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였겠다. 너무나 타당하여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경각심조차 불식간에 지나쳐버리게 했는지도 모를 핵심적인 지적이었다.

3. ‘타자’라는 올인원(all-in-one)

3-1. 여성은 타자다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의 최대 유산이라 할 수 있는 ‘탈중심적 주체’에 대한 논의는 (고전적) 모더니즘의 남성 중심적 사고 체계에 대한 비판의 방식으로 페미니즘의 당면 과제와 만나게 된다. 근대의 보편적 주체 논의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과 함께 ‘타자’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각종 문화 예술 텍스트와 담론에 다층적으로 복잡하고도 중요한 질문들을 불러들였다. 특히 여성 작가, 여성 시인의 텍스트가 논의의 대상이 될 때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타자’를 이해하는 방식이 탐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진경에 따르면, 여성과 섹슈얼리티는 항상 타자(화)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문학의 소외 혹은 소외의 문학이라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소외란 “역으로 타자의 결핍을 드러냄으로써 지배 질서의 결여나 공백을 드러내는 것”인데, “여성은 상징적 질서의 모순과 틈을 들여다봄으로써 지배 질서의 승인을 거부하고 그 질서 속에서는 포착될 수 없는 욕망과 언어를 드러내는 존재”²⁴⁾라는 것이다. “즉, 여성은 부재를 증명하는 부재, 결핍을 드러내는 결핍이다. 여성이 이데올로기라는

24) 심진경, 『여성, 문학을 가로지르다』, 문학과지성사, 2005, 5쪽.

환상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여성이 문학과 맞닿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좋은 문학이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고정된 형식을 거부하면서 존재해왔듯이, 또 그런 부정성이 문학의 한가운데서 그 핵심을 규정하는 자질이듯이, 여성 또한 마찬가지다.”²⁵⁾

주체, 중심, 질서 등의 동일화 논리에 포섭되지 않는 문학의 특성을 소외, 부재, 결여, 공백 등의 키워드로 갈무리하는 논의는 당시 비평들에서 드물지 않게 찾아진다. 강계숙이 김혜순의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 김혜순의 시에서 “사회적으로 강제된 정체성을 달가워하지 않는 여성 자신의 목소리”는 “수동적 여성으로서의 젠더 수행은 우울한 일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물음”을 던지는 것과 같은데, 그 목소리는 스스로를 ‘우울자’로 의식하고 “‘우울한 주체’로서 자신을 타자화하기 위해 우울을 사물로서 적극 호명”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이다.²⁶⁾ 이러한 “우울의 육체적 이행”은 “잃어버린 타자와 상실된 ‘그것’을 자아와의 합치를 통해 자아 내부에 존재케 함으로써 기존의 자아를 변형할뿐더러 자기 안에 마치 유령을 들이듯 부재하는 타자를 현존하는 것으로 되살리는 무의식적 운동”²⁷⁾이라고 말해진다.

이와 유사한 논의들이 증가하면서, 근대의 보편 질서에서 주변화된 사회적 약자들, 달리 말하면 제국주의적 근대화의 시선에서 배제되고 차별당했던 존재들이 역으로 근대적 주체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돌파해 갈 ‘타자(성)’의 위상으로 명료하게 부각되어 갔다고 말해볼 수도 있겠다. 심지어 근대의 이성적 질서, 우생학적 논리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도태되었거나 부진한 존재들, 가령 광인, 병인, 중독자, 불량자, 빈민, 백수 등의 존재들을 ‘하위주체’로 명명하며 그들에게서 새로운 정치 세력화의 단초를 기

25) 심진경, 『여성, 문학을 가로지르다』, 문학과지성사, 2005, 6쪽.

26) 강계숙, 『우울아, 놀자!』, 『우울의 빛』, 문학과지성사, 2013, 71-76쪽.

27) 강계숙, 『우울아, 놀자!』, 『우울의 빛』, 문학과지성사, 2013, 79-80쪽.

대하는 이론적 경향 속에서라면 ‘여성’이 탈근대적 윤리·정치 프로그램의 ‘중심’에 서는 것조차 어렵잖게 여겨졌는지도 모르겠다.

3-2. 타자적인 것이 여성적인 것

오로지 남성-주체와 여성-타자를 분리하는 논법이 우세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분법적 논리는 이미 ‘지루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의 논의를 보자. “김혜순의 시를 논하는 많은 글들은 흔히 남성의 언어와 여성의 언어를 구별하고 이를 다시 은유와 환유라는 수사학적 틀과 짝짓곤 한다. 출발이 그러하니 김혜순의 시가 환유적인 여성의 언어로 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복적이라는 결론이 뒤따르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논법이 이제는 좀 지루하다는 생각이 든다.” 신형철은 김혜순의 시에 대해 “그녀의 여성성이 ‘남성성의 타자’라는 의미로 한정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레비나스가 ‘타자성이 나타나는 상황은 여성적인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 라캉이 사랑의 진정한 장소를 ‘여성적인 것’에서 찾는다고 했던 것의 맥락을 빌려 김혜순 시의 타자성은 ‘근본적인 타자성’, 달리 말해 ‘전적으로 다른 것’과 관련된다고 부연한다. 성별 구분이나 여성의 신비화와는 관계 없는 ‘여성적인 것’이란 “남성의 타자라는 의미를 넘어선 곳”에, “특정한 분류법으로 포착되는 것이 아니라 분류법 자체를 혼란에 빠뜨린” 데서 발견되는 힘이라는 얘기다.²⁸⁾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김연수의 소설 『다시 한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에 대해 “죽은 여자친구의 진실, 곧 여성성에 도달하려는 노력”은 “항상 저 설산 너머 도달하지 못할 외부, 언어의 외부”를 향한 것이라고 말했던 김형중의 독해도 살펴보게 된다. 이 소설의 주인공에게 등반(설산)과

28) 신형철, 『불타는 사랑기계들의 연대기』, 『물락의 에티카』, 문학동네, 2009, 594-595쪽.

등단(글쓰기)은 여성성을 이해하는 과정 자체인데, 그녀를 끝내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는 “언어로도 등정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타자의 처소임을 용인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요한 건, 여성성이 곧 “타자의 절대적 외부성”이라기보다 절대적 외부로서의 타자를 인정하는 것이 곧 여성성을 이해하는 방식이 되리라는 뜻이겠다.²⁹⁾ 다르게 말하면, 여성적인 것이 타자적인 것이 아니라 타자적인 것이 여성적인 것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해도 될 만한 뒷받침이 되어 주는 사례는 적지 않으므로, 그 중 다음과 같은 독해를 덧붙여보겠다. 가령, 김행숙 시의 화자는 “나의 기분과 잠과 ‘꿈’, ‘표정’과 성 정체성까지도 내게 고유하게 귀속된 내 것이 아니며, 나는 나를 휘젓는 타자들의 “영화관” 혹은 “스크린”일 뿐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일한 정체성과 ‘나의 동일성’이라는 관습적인 굴레를 벗어버리고, 자기 안의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주체다.³⁰⁾ 이렇게 자-타의 경계가 사라짐으로써 생겨난 주체(이자 타자)인 화자가 ‘나’(라는 여성)의 표면을 지니고 있을 때, ‘타자적인 것’의 젠더는 아무래도 여성일 수밖에 없다.

각각의 텍스트에 대한 구체적, 세부적인 논의들은 저마다 다르지만 2000년대 문학 담론들이 ‘여성(성)’을 사유하는 어떤 지평에 대해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해질 수 있었으리라. 한 번 더 심진경의 글을 발췌하는 편이 나올 터인데, 그는 이리가레를 인용하여 진정한 여성에 관한 새로운 이해의 지평은 “남성적 가치 체계라는 상징적 규정성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며 그런 한에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이러저러하게 규정된 규범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성성은 형식의 결여 자체를 의미한다”고 썼다. 이어 크리스테바를 인용하여 “여성성이란 여성의 본질이 아니다. 그것은 기호계the semiotics와 같은 무언가

29) 김형중, 「성(性)을 사유하는 윤리적 방식」, 『창작과비평』, 2006년 여름호, 248쪽.

30) 박진, 「내 안의 타자들—김행숙의 시」, 『달아나는 텍스트들』, 랜덤하우스, 2005, 322쪽.

로서, 상징계 내에서 언어화되지 않으면서도 상징적인 것을 떠받치는 것, 이를테면 라캉의 실재the real에 가까운 개념이다. 즉 그것은 부재를 증명하는 부재이자, 전복된 중심의 텅 빈 주인이다. 여성성이 문학 자체와 맞닿아 있는 지점은 바로 여기다. 문학이 끊임없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여성성 또한 그러한 부정성을 자기 존재의 근거로 삼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성은 더 이상 여성성이 아니다³¹⁾라고 정리한다. 이런 언설은 논리적 또는 실제적인 진위, 시비를 떠나 당대의 담론들—물론 이 경우 여성(성)에 관한 담론들—이 놓인 지식장—말하자면 ‘해체주의’적 혹은 ‘탈식민주의적’ 비판이론 등—의 분위기를 일부나마 엿보여주기도 한다.

4. ‘탈-’과 ‘너머’의 요청으로

4-1. ‘탈-’의 상상력/담론과 함께

2000년대 문학 담론들에서 다음과 같은 말들, ‘규정된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것’, ‘전복된 중심의 텅 빈 주인’, ‘문학의 자기 부정성’ 등의 언사는 가장 자주 쓰이고 그만큼 익숙하게 받아들여져 왔다. 국적, 인종, 성별, 계급 등의 사회적 위계는 물론 인간, 동물, 사물, 기계, 유명 등의 심리적 범주, 그리고 장르의 실질적 제한 등의 경계(들)를 넘나들고 무화하는 현상은 2000년대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이른바 탈이념, 탈중심, 탈주체 등등의 시대였던 2000년대, 한국 소설의 새로운 경향성이 ‘혼종’, ‘접속’, ‘무중력’ 등으로 명명되고, 다수의 한국 소설에 드러난

31) 심진경, 『여성성 혹은 문학적 상상력의 원천』, 『떠도는 목소리들』, 자음과모음, 2009, 150쪽.

여러 표상이 '환상', '종말', '비인간' 등으로 바뀌 말해졌던 것을 기억해보면 되겠다. 2000년대 중반부터 부각된 젊은 시인들의 새로운 감각과 함께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규정되어야 했던 서정(성)을 '낯섦', '혁신', '전복' 등으로 향유하고 사유해 왔던 것도 함께 떠오를 것이다.

시기를 한정해서 말해보자면 대략 1990년대 말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라 할 즈음의 '한국문학은, 말하자면 '어떤 전체로도 환원되지 않는 개별적 주체들을 가시화하는 미학적 형상'으로, '동일화되는 주체성의 확립에 저항하는 미학적 모험'으로, 의미화되었다. 한편으로 그것은 그 이전까지 누적되어 온 문학의 관습 또는 규범을 의문에 부치고 리얼리티 자체를 혁신하려는 시도와 운동을 통해 기존의 문학(성)을 타파하려는 것이기도 했다. 전방위에서 '종말'을 알려온 (근대)문학은 이미 막다른 데를 지나친 듯한 분위기에서, 당시 한국 문학이 이질적인 것, 타자적인 것, 불확실한 것 등에 기울인 관심은 어떤 방향으로든 기존의 임계점을 성찰하고 '한 걸음 더'를 추구하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전위성을 띤 실천들이기도 했다. 그 실천은 대개 기성에 대한 반감과 거부의 표출이기도 했을 터인데, 그 중에는, 일종의 재현 장치라 할 수 있는 '문학' 자신에 대한 위반, 즉 '(문학)적재현'이라는 관습적 질서에 대한 문학 자신의 전복적인 태도였다고도 말해볼 수 있다. '문학적'이라는 명목으로 굳어져 온 기존 질서를 갱신하려는 욕망은, 이를테면 이제껏 (문학)적재현/표상의 관습으로 굳어져 온 '문학 규범'을 탈피하려 시도와 통하면서 또한 재현/표상의 임계를 고민하는 예술가적 태도와 직접 닿아 있는 것이라고도 하겠다.³²⁾

이는 2000년대 소설의 한 경향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분석을 통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소영현은 우선 이런 평가를 내린다. "2000

32) 이상 두 문단은, 줄고, 『K문학/비평의 종말에 대한 단상(들)』(『웹진 문장』, 2017년 2월호 <http://webzine.munjang.or.kr/archives/15136>)에서 발췌, 수정한 내용임.

년대 문학에서 타자를 사유하는 스펙트럼은 매우 넓어졌다. 한유주와 김유진, 편혜영과 윤이형이 보여주는 바, 사라지거나 배제된 것, 그래서 인식할 수 없거나 말할 수 없는 것, 그럼에도 매번 돌아오거나 한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는 것, 이(것)들을 다루는 범주와 방식은 다채로워졌다.”³³⁾ 그리고는 특히 ‘사라지고 배제된 것들이 “인식불가능한 것으로” 다뤄지는 한유주의 소설과 “재현불가능한 것으로” 다뤄지는 김유진의 소설에 대해 “배제된 타자와 억압된 실재에 다가가려는 시도의 흔적들”³⁴⁾로서 “타자와 글쓰기를 둘러싼 고통스러운 역설 위에 구축된 세계”³⁵⁾임을 먼저 적시한 후, 그에 대한 모종의 회의감을 이와 같이 드러냈다. “2000년대 소설이 드러내는, 억압되거나 배제된 것들 혹은 전혀 이질적인 것에 대한 꽤 많은 관심에는 과연 과도한 이론으로 무장한 진릿값이 매겨져 있는 것일까.”³⁶⁾ 그는 아마도 한유주와 김유진의 소설들에서, 재현 가능성에 대한 의지보다 의심을, 재현 불가능성에 대한 극복보다 체념을 더 많이 보았던 것 같다. “2000년대 문학이 ‘타자’를 어떻게 복원하는지, 과연 복원하는 것인지, 무엇보다도 2000년대 문학이 과연 새로운지를 새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다시금 회의를 표명한 그는, “말할 수 없는 혹은 말해질 수 없는 그것들을 향한 질문이 동일성의 해체를 주장하는 자동반사적이고 무차별적인 위반을 가로질러 ‘도래해야 할’ 우리(동일자)에게로 수렴”³⁷⁾해야 할 필요를 한 번 더 묻는다.

33) 소영현, 『~이 불가능한 ……을 위한 소설들』, 트랜스-문학 시대의 타자/윤리, 『분열하는 감각들』, 문학과지성사, 2010, 38쪽.

34) 소영현, 『~이 불가능한 ……을 위한 소설들』, 트랜스-문학 시대의 타자/윤리, 『분열하는 감각들』, 문학과지성사, 2010, 31쪽.

35) 소영현, 『~이 불가능한 ……을 위한 소설들』, 트랜스-문학 시대의 타자/윤리, 『분열하는 감각들』, 문학과지성사, 2010, 32쪽.

36) 소영현, 『~이 불가능한 ……을 위한 소설들』, 트랜스-문학 시대의 타자/윤리, 『분열하는 감각들』, 문학과지성사, 2010, 38쪽.

37) 소영현, 『~이 불가능한 ……을 위한 소설들』, 트랜스-문학 시대의 타자/윤리,

기존의 문학적 관습/폐해를 청산하려는 실천의 일환으로서, 이를테면 현실 재현의 서사가 주로 의지하는 '시각적 상상력'보다는 말들의 연결과 흐름으로 생성되는 '언어적 상상력'이 우세해졌던 경향 같은 것도 함께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앞에서 소영현의 분석을 빌어 언급했듯, 그 시도가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재현 너머를 의식하는 언어와 상상이 역으로 재현을 불신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냈다고도 하겠다. '재현 너머' 혹은 '재현 아닌' 재현은, 서사를 주로 시각적 상상력에 의지해 수용해 온 대중적 감수성과 특히 멀어지는 결과에 이르는 데 일조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한국 문학은 유독 '서사성의 결핍', '난해시의 불통' 등의 불만을 대중-독자들에게 샐고, 그와 연관된 맥락에서 언제부턴가 대중-독자들은 문학에서 자기 얘기를 못 찾겠다든가, 문학이 대중-독자를 교양의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가 싫다든가 하는 불평에까지 이른 것으로도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재현에 대한 탐구가 재현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해야 할까. 요컨대 재현의 임계/한계/경계에 대한 문학의 참여한 고민은 '대중적인 것'의 형질 변화를 유도하는 데로 나아가지 못했다.³⁸⁾

4-2. '(여성)재현 불가능'의 역설

2000년대 문학 담론들에 나타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재현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보게 된다. 『젠더 트러블』, 『안티고네의 주장』 등을 통해 잘 알려진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과 함께 우리 문학 담론에서도

『분열하는 감각들』, 문학과지성사, 2010, 38-39쪽.

38) 백지은, 『K문학/비평의 종말에 대한 단상(들)』(『웹진 문장』, 2017년 2월호 <http://webzine.munjang.or.kr/archives/15136>) 참고.

자주 참조되었던 여성 주체 ‘안티고네’가 어떤 맥락에 놓이곤 했었는지 떠올려 볼 수 있다. 김미현의 표현에 따르면 “안티고네는 친족 교란과 젠더 역전을 통해 모호하고 이질적인 젠더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포스트페미니즘적 여성 주체”이다. 안티고네가 대표하듯 이른바 ‘포스트 페미니즘’은 “보편적인 여성Women이 아니라 개별적인 여성woman의 차이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적이고 전복적인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젠더 개념 자체가 허구적이고 유동적”임을, “원본 없는 패러디를 통해 해체되고 재구성”된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었다. “권력에 복종하면서도 자신의 내부에 자기 부정성을 가지고 있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잉여물로서의 젠더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해질 수 있었던 것은,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의해, 혹은 어떤 전복적인 효과를 위한 전략으로서 ‘젠더 정체성’이 구성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젠더를 없애기 위해 젠더를 말한다. 이것이 바로 젠더 패러독스이다”³⁹⁾라는 발언은 2000년대 (포스트)페미니즘의 모토로도 들린다.

물론 당시에 그 패러독스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거니와 그에 관한 반성적 성찰까지도 없지 않았다. 김미현은 1990년대 페미니즘 문학이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 남성 중심 문학사에 대한 도전과 여성 작품의 다사-보기, 여성적 글쓰기에 대한 규명 등 다방면에서 “찬란”하여 “1930년대에 이어 ‘제2의 르네상스’로 명명”할 만하다고 평가하면서도 2000년대 들어 “그 파급력은 현저히 약화되었고, 페미니즘 문학 내부에서도 분열 혹은 분화”가 있었던 것을 지적한 바 있다. 1990년대 “페미니즘 문학의 부흥이 오히려 페미니즘 문학에 한정된 특권만을 주면서 그 ‘계토’ 내에서만 자유를 구가하도록 한 것이기에 오히려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수단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보다 철저한 부

39) 김미현, 『젠더 프리즘』, 민음사, 2008, 6-7쪽.

정과 거부를 통해 페미니즘 문학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생각해보자는”⁴⁰⁾ 반성과 다짐으로까지 나아갔음을 직시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제 다시 돌아다 보이는 것은 그가 2008년 출간한 『젠더프리즘』의 머리말에서, 그보다 6년 전 출간했던 『여성 문학을 넘어서』(2002)를 상기하며 2008년에 돌아보는 2002년에 대해 이렇게 말했던 사실이다. “내가 그때 넘어서려던 여성 문학은 (남성)문학과 대립되는 문학, 불행이나 상처만을 강조하는 ‘상상의’ 여성 문학이었다.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여성과 남성, 중심과 주변, 외부와 내부를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키는 환원주의와 본질주의에 빠지기 쉬웠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여성문학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진짜 여성 문학이냐 가짜 여성 문학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처럼 느껴졌다. 그러니 여성은 움직이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다. 행복하거나 불행했다. 그때 여성은 단수이고 대문자였다. 그런 여성을 넘어서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당연한 것이어서 도그마나 딜레마가 되기도 했다.”⁴¹⁾ “당연한 것이어서 도그마나 딜레마가 되기도 했다”는 이 말을, 다시 찬찬히 새겨 듣게 된다. ‘대문자 여성’을 넘어서야 한다는 당위가 ‘여성’을 미약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전해진다. 개별 여성들의 행위와 생각을 재현한 ‘진짜 여성 문학’에서 ‘여성의 삶’은 희미해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엿보인다. 넘어서야 하는 것은 ‘대문자’이지 ‘여성’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하는 듯하다.

40) 김미현, 『‘상상의’ 페미니즘 문학』, 『젠더 프리즘』, 민음사, 2008, 13-14쪽.

41) 김미현, 『젠더프리즘』, 민음사, 2008, 5쪽.

5. 맺음말: '젠더 패러독스'를 넘어

2000년대 문학/담론에서 '여성'을 사유하거나 논의할 때는, 그것이 이른바 '대문자 여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환원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식이 무엇보다도 강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환기/각인하는 문학적 실천들이 다양한 맥락에 걸쳐 있는 사회적 실천의 수행과 겹쳐진 구성임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숙고하고 헤아렸던 시기였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언제나 유동적이어서 뚜렷한 경계로 획정할수록 어긋나거나 왜소해질지 모를 '여성'이라는 젠더를 고착적인 이분 대당의 도식에 가두지 않기 위해, '여성'의 가시적인 처지들을 비가시적인 가능성 속에 녹아들게 하려는 의도였다고도 판단된다. 젠더가 모호하고 불확실한 잉여물로서의 정체성임을 알고 그것을 강조하기. 젠더의 구성력을 말하는 것이 결국 젠더의 구성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라는 인식 위에서 젠더를 없애기 위해 젠더를 말하기. 2000년대 여성문학/담론은 그런 역설의 한가운데를 통과해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자명한 것들, 규정된 것들이 지니는 억압과 폐해에 대한 회의와 부정이 '젠더'에 관해서도 다소간 역설적인 인식을 끌어들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쩌면, 그런 억압과 폐해를 다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회의하고 부정하려는 데까지 나아갔기 때문이라 해도, 결과적으로 '여성'은 충분히 말하지 못했고 말해지지 못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바깥 말해, 젠더의 허구성을 타파하려 했으나 여전히 강고한 그 위력에, 이 사회 전방위에서 문제성을 알려오는 '여성의 삶'이 걸려버리지 않을 도리는 없다. 잉여물로서의 젠더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강조할 방법을 찾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다만 모호하고 불확실한 잉여물임을 알았다는 데서 주춤하고 말았던 것일까. 그리하여 혹여, 젠더를 말하지 않음

으로써 젠더를 무너뜨리려는 — ‘여성’을 덜 말함으로써 ‘여성’을 허물려는 — ‘젠더 패러독스’가, ‘페미니즘 문학’으로서 유의미한 효과를 냈다가 보다 ‘페미니즘 문학’의 자리에 ‘젠더 패러독스’의 패러독스까지 겹치게 하는 뜻밖의 곤경에 다다랐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상은 2000년대 문학/담론에서 ‘페미니즘’이 처했을 역설의 사태를 짚어본 것이기도 하지만, 이 글은 페미니즘의 위축과 곤경이 아니라 페미니즘의 위상과 성과를 살펴본 것이다. 최근 여성 작가들이 ‘여성의 삶’을 주체화하여 쓴 소설이나 한국의 남성적 문화에서 만연한 (성)폭력을 다룬 소설 등이 ‘페미니즘 문학’으로 호명되며 주목을 받게 된 상황은, 지난 시기 문학/담론들이 감당하려 했던 패러독스를 견어낸 계기로서 고찰될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지나 온 어떤 역설과 곤경, ‘도그마와 딜레마’와 ‘부정과 회의’ 등의 연속선 위에서, 앞으로도 개별적인 여성 주체들이 주도하는 서사가 남성 중심적 역사와 사회에 대한 침예한 문제 의식과 정확하게 맞물려 작동하리라는 기대도 가능하다. 이 글에서 살펴본 2000년대의 문학/담론들이 여성 비평(가)에 집중된 것은, 여성 문학에 대한 관심과 입장이 주로 그들의 것이었다는 사실보다도 그 여성 비평(가)의 성과야말로 현재 페미니즘의 전사라는 사실 때문이다. 돌이켜보건대, 그 전사가 강력한 페미니즘이 아니었다면 그 까닭은 패러독스 위에서 여성 문학을 말했던 여성 비평이 아니라 패러독스를 옆으로 치워두고 여성 문학을 말하지 않았던 다른 비평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살펴 이후의 여성 문학을 도울 계제로 삼을 중요한 작업은 다음 과제로 미뤄둔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미현, 『젠더 프리즘』, 민음사, 2008.
소영현, 『분열하는 감각들』, 문학과지성사, 2010.
신수정, 『푸줏간에 걸린 고기』, 문학동네, 2003.
심진경, 『여성, 문학을 가로지르다』, 문학과지성사, 2005.
_____, 『떠도는 목소리들』, 자음과모음, 2009.
허윤진, 『5시 57분』, 문학과지성사, 2008.

2. 논문과 단행본

- 강계숙, 『우울아, 놀자!』, 『우울의 빛』, 문학과지성사, 2013, 61-80쪽.
김현미, 『페미니스트 지리학』, 『여/성이론』 19호, 도서출판 여이연, 2008, 276-293쪽.
김형중, 『성(性)을 사유하는 윤리적 방식』, 『단 한권의 책』, 문학과지성사, 13-33쪽.
박진, 『내 안의 타자들—김행숙의 시』, 『달아나는 텍스트들』, 랜덤하우스, 2005, 317-324쪽.
백지은, 『K문학/비평의 종말』에 대한 단상(들), 『웹진 문장』, 2017년 2월호.
서동진, 『생각하는 페미니즘』, 『여/성이론』 22호, 도서출판 여이연, 2010, 248-258쪽.
소영현, 『~이 불가능한 ……을 위한 소설들』, 트랜스—문학 시대의 타자/윤리, 『분열하는 감각들』, 문학과지성사, 2010, 17-39쪽.
_____, 『포스트모던 소비사회와 여성소설의 후예들』, 『분열하는 감각들』, 문학과지성사, 2010, 166-181쪽.
_____, 『페미니즘이라는 문학』, 『문학동네』, 2017년 가을호, 519-539쪽.
신형철, 『불타는 사랑기계들의 연대기』, 『몰락의 에티카』, 문학동네, 2009, 574-595쪽.
임옥희, 『최근 페미니즘의 이론 동향』, 『오늘의 문예비평』 68호, 2008, 80-95쪽.
최일성, 『탈중심화된 주체, 혹은 '소비주체'의 등장』, 『정치사상연구』 23, 한국정치사상학회, 2017, 31-49쪽.
허윤진, 『나의 분홍 종이 연인들, 언어로 가득 찬 자궁이 있는 남성들』, 『5시 57분』, 문학과지성사, 2008, 214-234쪽.
_____, 『(깨진) 거울을 보는 남성들』, 『5시 57분』, 문학과지성사, 2008, 276-290쪽.

- 낸시 프레이저, 『전진하는 페미니즘』, 임옥희 역, 돌베개, 2017.
수전 팔루디, 『백래시』, 황성원 역, 아르테, 2017.
주디스 버틀러, 『윤리적 폭력 비판』, 양효실 역, 인간사랑, 2013.
_____, 『젠더 허물기』, 조현준 역, 문학과지성사, 2015.

Abstract

(Mis)Fortunes of Feminism

Baik, Ji-Eun(Korea University)

It is important to look at the position and status of 'feminism' in the literary discourse of the 2000s as the pre-history of the recent "Feminism discourse". What was the status of 'feminism' in the field of literature of the past? How do women writers and critics, who have been rapidly and quantitatively expanding through the 1990s and 2000s, connect with the recent debate on feminism?

This article discusses the aspects of 'femininity' or 'women's literature' in the literary discourse and literary criticism of the 2000s and feminism discussions related to other 'Others', and 'sub-version' in the study of literature. In the literary discourse of the 2000s, when thinking about or discussing 'women', the idea that it should not be reduced to the so-called 'Women' was strong. I think it was a certain paradox of 'speaking gender to get rid of gender', so-called "Gender-Paradox".

This will be reflected in the methods of identifying and utilizing the core meaning and power of the new feminist practice and movement that has begun.

(Keywords: feminism, Post-feminism, Gender Paradox, literary criticism in the 2000s)

논문투고일 : 2018년 4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8년 5월 5일

수정완료일 : 2018년 5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8년 5월 15일